

LEEBAE

1956년 청도 출생
1979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졸업
1990년 도불

숯이 회화 작업의 매재로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숯은 한국인에게 친숙한 존재이고, 이영배의 작업이 처음 숯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큼니다. 애초 대상을 표현하는 의도로 숯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질료를 넘어 숯 그 자체를 작품으로 자리시키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000년대로 오면서 그는 숯을 미디어로 하는 평면작업에 몰입합니다. 흑색과 백색으로 요약되는 작품은 흰 바탕에 검은 획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아크릴릭 미디어의 바탕에 나타나는 검은 획은 숯을 질료로 한 미디어이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흰 바탕에 반사된 검은 선은 더욱 윤기를 머금은 것으로 표상되어, 종이에 먹으로 쓴 서체의 그것보다 탄력 있는 물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은 획들은 형상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서체라고도 할 수 없는 중간 상태에 머문 인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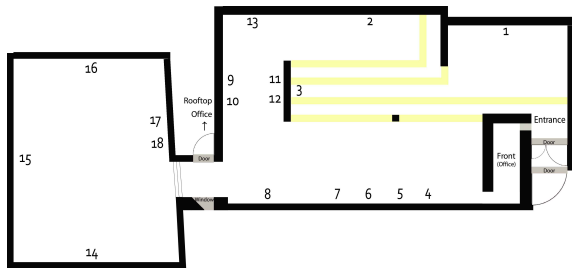
이번 학교재 전시작의 특징은 천연 밀랍의 성분차이로 인해 배경이 백색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2007년 작품은 연미색을 띤 배경이었음) 거기에 기존의 검은 획을 긋는 작업에서 변화를 주어 빨강색 아크릴릭 컬러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작가에게 이 붉은 색은 결코 이질적인 색이 아닙니다. 검은 숯은 불쏘시개가 되어 붉게 타오르게 되고 검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숯이 됩니다. 서양문화권에서 검정색이 단순한 '죽음'의 의미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것과 달리 작가는 자신의 검정색이 '생성과 소멸'을 품고 변화해 나가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영배의 숯 작업은 또한 생성하고 소멸하는 물성의 변화 양상을 좇습니다. 결정된 형상이나 기호보다 생명 현상인 변화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발아하는 식물의 생성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내밀한 안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오면서 작은 싹에서 점차 두터운 줄기로 자라나며 잎을 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리고는 땅에 떨어져 파묻히는 순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절제와 생략은 생명 현상의 내밀한 질서를 나타냅니다.

이영배와 함께 검정은 살아있다. 검정은 그의 반사로, 얼룩으로, 조합으로, 입체감으로 또 그의 우연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생명이 불어넣어진 검정은 숯의 이념 자체에 다시 접목하는데, 숯은 바로 삶과 에너지의 훌륭한 재원이 아닌가. 그런데 이 상징적인 양상을 넘어 이영배의 흥미를 지배하는 것은 재료의 조형적 질감이며 바로 이점은 이영배에게 막대한 발명의 자유를 제공한다. 첫 눈에 빈한해 보이는 숯은 실제로 가능한 조합의 다양성이란 기능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져다준다. 각기 다른 조각들의 합성 및 처리 방법 (매끈하거나 까칠한 표면, 균일하거나 굵이 가있는 표면, 작거나 큰 파편의 다양함...)은 표면의 풍요로움을 탄생시키고 또한 검정의 풍요로움을 획득한다.

양리 프랑수아 드바이외 (미술평론가)

이영배
Main



- 17A08, 195x15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27JU08, 150x195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11J08, 130x97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14J08(triptych), 92x73cm(each),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23J08-1,2, 92x73cm(each),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23J08-3, 92x73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23J08-4, 92x73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13J08, 92x76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250608, 116x89cm(each),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13A08, 116x89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29M08, 92x6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02A08, 92x6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12A08, 116x89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07JL08, 150x195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1A08, 200x15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11F08, 92x60cm(each),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21A08, 140x62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 27A08, 73x6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LEEBAE

1956 Born in Chung-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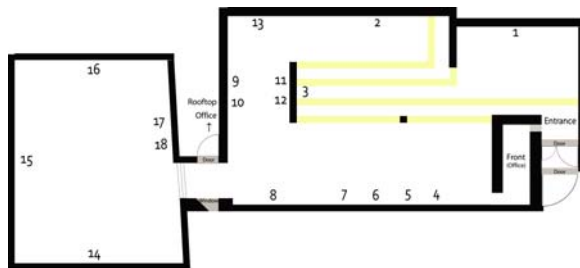
1979 M.F.A. Department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Charcoal has been used as a medium of painting for a long time. The fact that Lee, Bae started his artistic career with charcoal suggests a lot of things to us. Charcoal, a burned substance, is not a flexible material. It is rather like a hollowed skin. Maybe Lee chose this medium for his works out of the interest in the refining power that this processed material has. It would be more proper to say that he made the medium itself speak for the expression of his works.

Since 2000, Lee has been absorbed in two dimensional works using charcoal as medium. His works are made up with black and white areas. The structure is very simple; black strokes on the white background. It is not easily noticeable that the black lines are painted with charcoal. Reflected by the white background, the strokes have more elastic materiality than those which painted in Chinese ink on rice paper. A special gloss is covering them, which is incomparable to the simple and natural expression of Chinese ink spread on pap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black lines on acrylic surface are intended to make either a shape or a word. They rather seem to represent a state between a visual form and handwriting.

Lee's art started with his own discovery of charcoal search for the changing aspects of the properties of material between creation and extinction. He has focused on the changing phenomena of 'life' rather than making a definite form or sign. They are rather like spaces where the seeds of life slowly spout and grow. Lee is showing the inner landscape in a more secret and careful way, which shows the circulation of a creation and extinction of a seed which spouts, grows as a thicker plant, has leaves, flowers and fruits, then falls on the ground and is varied as a seed again. It represents the secret inner order inside the phenomena of life through the extreme abstraction and abbreviation.

이 영 배
Main



1. 17A08, 195x15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2. 27JU08, 150x195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3. 11J08, 130x97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4. 14J08(triptych), 92x73cm(each),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5. 23J08-1,2, 92x73cm(each,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6. 23J08-3, 92x73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7. 23J08-4, 92x73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8. 13J08, 92x76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9. 250608, 116x89cm(each),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0. 13A08, 116x89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1. 29M08, 92x6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2. 02A08, 92x6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3. 12A08, 116x89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4. 07JL08, 150x195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5. 1A08, 200x15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6. 11F08, 92x60cm(each),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7. 21A08, 140x62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8. 27A08, 73x60cm, 2008,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